

市교육청, 다 함께 책 읽는 문화 조성 '온 힘'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독서교육 자료 5종 보급 문해력 향상·비판적 사고·소통 능력 배양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다 함께 책 읽는 문화' 조성에 나선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 현장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학교자율시간 활용 독서교육 자료 2종, '한 학기 한 권 읽기(은책읽기)' 독

서교육 자료 3종 등 총 5종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다시 책으로'에 이어 올해 추진하는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자율시간 활용 독서교육 자료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기초로 학교자율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용 '책, 함께 놀자'와 중학교용 '책 품다: 책이 품은 질문들' 등이다. 해당 자료는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접하며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은책읽기)' 독서교육 자료 3종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

교 수준에 맞춰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 활동을 계획하고, 독서 관련 토론·글쓰기·발표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용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는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유도하고, 중학교용 '비경쟁 독서토론을 통한 문해력 만렙 도전'은 학생들이 비경쟁적 환경에서 독서토론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비판적 사고 및 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학교용 '한 책 한 걸음'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5종 모두 다양한 참고 사례, 학생 활동지 등을 담아 이해를 도왔다. 자료들은 시교육청 누리집(자료마당)·부서별 공개자료실·진로진학과에 PDF 파일로 탑재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

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독서문화가 학교 현장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학생들의 독서 및 학습능력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에 개발한 독서교육 자료가 학교자율시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독서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도 학생 중심의 실천적 현장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조선대 행정복지학과 학생이 동구 행정동주민센터 사례 관리 담당자와 함께 1인 가구 어르신들 찾아 레토르트 식품 및 반찬 나눔 바우처 쿠폰을 전달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제공)

조선대 '1인 가구 밥상 지원사업' 실시

ESG 경영 실천...두 달간 동구 관내 100가구에 식사 제공

조선대학교는 13일 "ESG 경영 실천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1인 가구 대상 따뜻한 밥상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12월 약 두 달간 광주 동구 관내 40세 이상 중장년층 1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조선대는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을 선발해 동구 행정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와 함께 수

혜 대상 가구를 방문, 레토르트 식품 및 반찬나눔 바우처 쿠폰을 지급하고 1인 가구 어르신에 말벗 봉사 등의 활동을 펼쳤다. 반찬나눔 바우처 쿠폰은 동구에 위치한 반찬가게에서 쿠폰을 제시하고 반찬으로 교환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반찬나눔 바우처 쿠폰 지급함으로써 집 밖으로 나와 반찬을 구입하게 해 고위험군의 외출 유도를 통한 사회적 고립 예방의 효과가 있

다"며 "소상공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활동에 참여한 행정복지학과 학생은 "대학의 ESG 실천뿐만 아니라 강의실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사업을 준비한 박종락 기획처장은 "대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ESG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다문화 학생 지원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 개발 착수

5월 배포, 학습격차 해소 기대

광주시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돕기 위해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 개발에 나선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은 광주지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3월 말까지 앱을 개발하고 1달간 검증 기간을 거친 후 5월 중순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발하는 앱은 전국 최초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산, 지형, 인물, 사건 등 지역 콘텐츠

츠 중심으로 광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애니메이션, 그림 등을 활용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다. AI를 활용해 다국어 번역 기능, 학습자 쓰기, 말하기 학습, 필기 인식 기술 등을 지원하고, 학생 모드와 별도 교사 모드를 운영해 학급 관리와 학급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작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 환경도 태블릿, 휴대전화 등 모바일, PC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본청 대회의실에서 앱의 개발 방향을 알리기 위한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습지 생성·활용 방법



에 대한 연수,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학부모 상담 장구 등 제안도 있었다. <사진>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이 단순한 교육 도구를 넘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광주여대, MAUM 경영지도사 역량 강화

자격과정 이수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추진

MAUM(마음) 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가 마음경영지도사들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13일 광주여자대학교 MAUM교육원에 따르면 최근 전북 순창군 신허랜드(SHILLAND)에서 2025년 마음경영지



광주여자대학교가 최근 전북 순창군 신허랜드에서 마음경영지도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광주여자대학교 제공)

도사 보수교육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마음경영지도사 자격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휴·메디푸드 웰에이징 in 순창 힐링연수'란 주제로 ▲힐링요가&명상 ▲메디푸드 체험 ▲원예 테라피 ▲허브족욕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뤄졌다. 현재 광주여대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MAUM교육 선도대학'이란 비전 아래 특화된 MAUM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음챙김 과정을 통해 온전한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수용으로 행복감을 높여 그 가치를 지역사회에 나누고 공헌하는 참된 여성 지도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경화 광주여대 MAUM교육원 원장은 "보수교육에 참여한 마음경영지도사들이 한 단계 성장해 전문가로 활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